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10주년 성과집

다름을 남다름으로, 다움을 참다움으로 만들어온 10년



2010년 첫 학생을 맞은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이중언어와 과학에 재능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미래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891명의 학생이

배움의 기회와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하는

경험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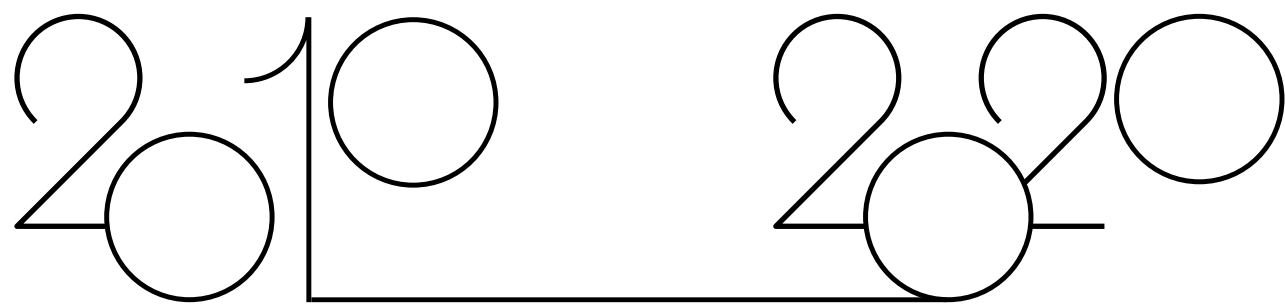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역량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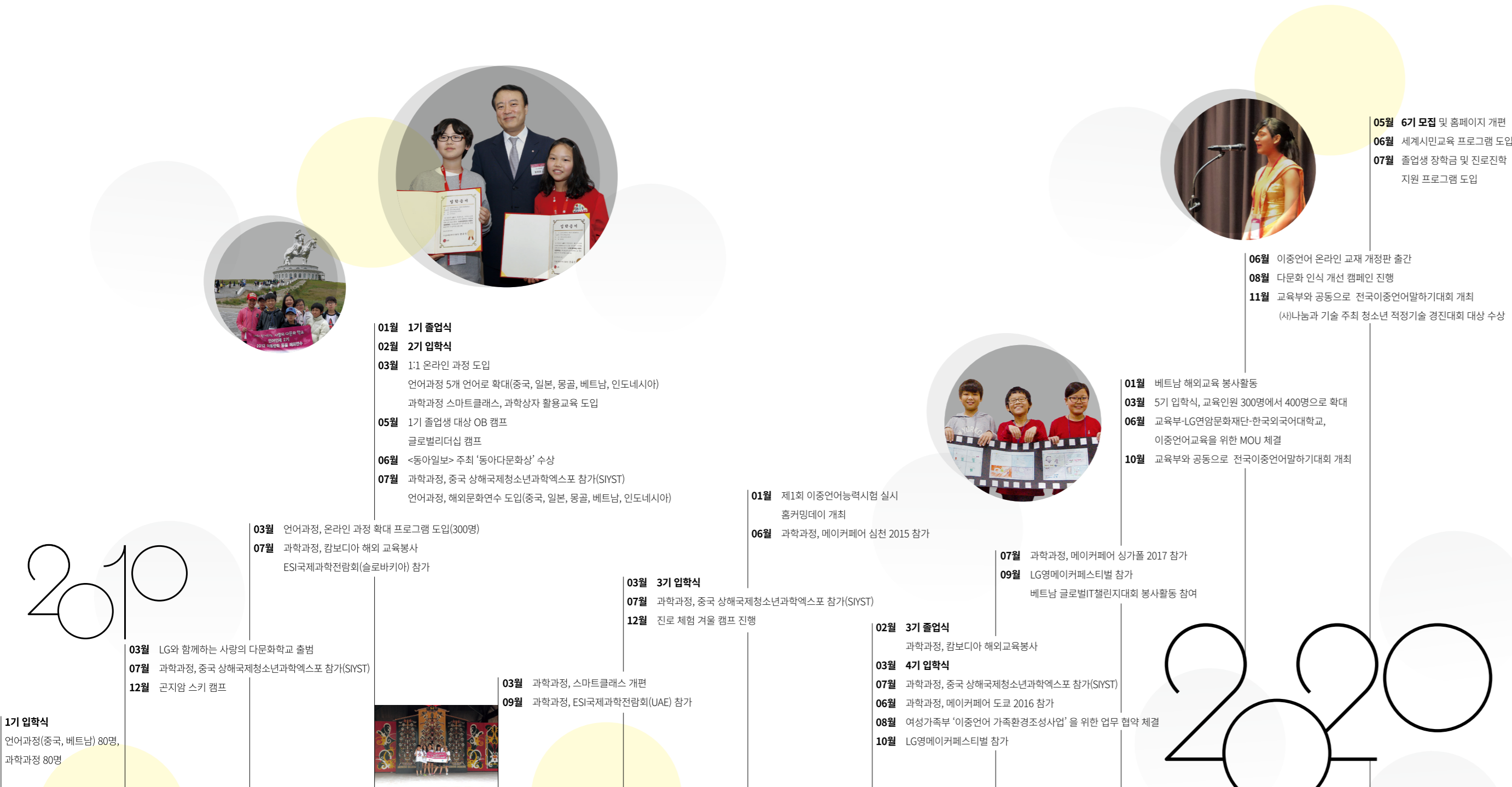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며

다름을 남다름으로, 다음을 참다움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남다름으로
다음을 참다움으로 만들어온 10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기 입학식 언어과정(중국, 베트남) 80명, 과학과정 80명	03월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출범 07월 과학과정, 중국 상해국제청소년과학엑스포 참가(SYST) 12월 곤지암 스키 캠프	03월 언어과정, 온라인 과정 확대 프로그램 도입(300명) 07월 과학과정, 캄보디아 해외 교육봉사 ESI국제과학전람회(슬로바키아) 참가	01월 1기 졸업식 02월 2기 입학식 03월 1:1 온라인 과정 도입 언어과정 5개 언어로 확대(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학과정 스마트클래스, 과학상자 활용교육 도입 05월 1기 졸업생 대상 OB 캠프 글로벌리더십 캠프 06월 <동아일보> 주최 '동아다문화상' 수상 07월 과학과정, 중국 상해국제청소년과학엑스포 참가(SYST) 언어과정, 해외문화연수 도입(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03월 3기 입학식 07월 과학과정, 중국 상해국제청소년과학엑스포 참가(SYST) 12월 진로 체험 겨울 캠프 진행	01월 제1회 이중언어능력시험 실시 홈커밍데이 개최 06월 과학과정, 메이커페어 심천 2015 참가	02월 3기 졸업식 과학과정, 캄보디아 해외교육봉사 03월 4기 입학식 07월 과학과정, 중국 상해국제청소년과학엑스포 참가(SYST) 06월 과학과정, 메이커페어 도쿄 2016 참가 08월 여성가족부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0월 LG영메이커페스티벌 참가	01월 베트남 해외교육 봉사활동 03월 5기 입학식, 교육인원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 06월 교육부-LG연암문화재단-한국외국어대학교,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MOU 체결 10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01월 제1회 이중언어능력시험 실시 홈커밍데이 개최 06월 과학과정, 메이커페어 싱가포르 2017 참가 09월 LG영메이커페스티벌 참가 베트남 글로벌IT챌린지대회 봉사활동 참여	01월 이중언어 온라인 교재 개정판 출간 08월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11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사)나눔과 기술 주최 청소년 적정기술 경진대회 대상 수상	01월 이중언어 온라인 교재 개정판 출간 08월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11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사)나눔과 기술 주최 청소년 적정기술 경진대회 대상 수상	06월 6기 모집 및 홈페이지 개편
1기 입학식	중국 상해국제청소년과학엑스포 참가 곤지암 스키 캠프	캄보디아 과학교육봉사	1기 졸업식 과학과정, 스마트클래스 개편	3기 입학식	메이커페어 심천 2015 참가	3기 졸업식 캄보디아 해외교육봉사	4기 입학식 베트남 해외교육봉사	5기 입학식 메이커페어 싱가포르 2017 참가	6기 모집 및 홈페이지 개편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청소년 적정기술 경진대회 대상 수상	6기 모집 및 홈페이지 개편

다름을 남다름으로
다움을 참다움으로 만들어온 10년

다름을 남다름으로 다움을 참다움으로 만들어온 10년

다문화 학생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가 어느덧 열 살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준 멘토 및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등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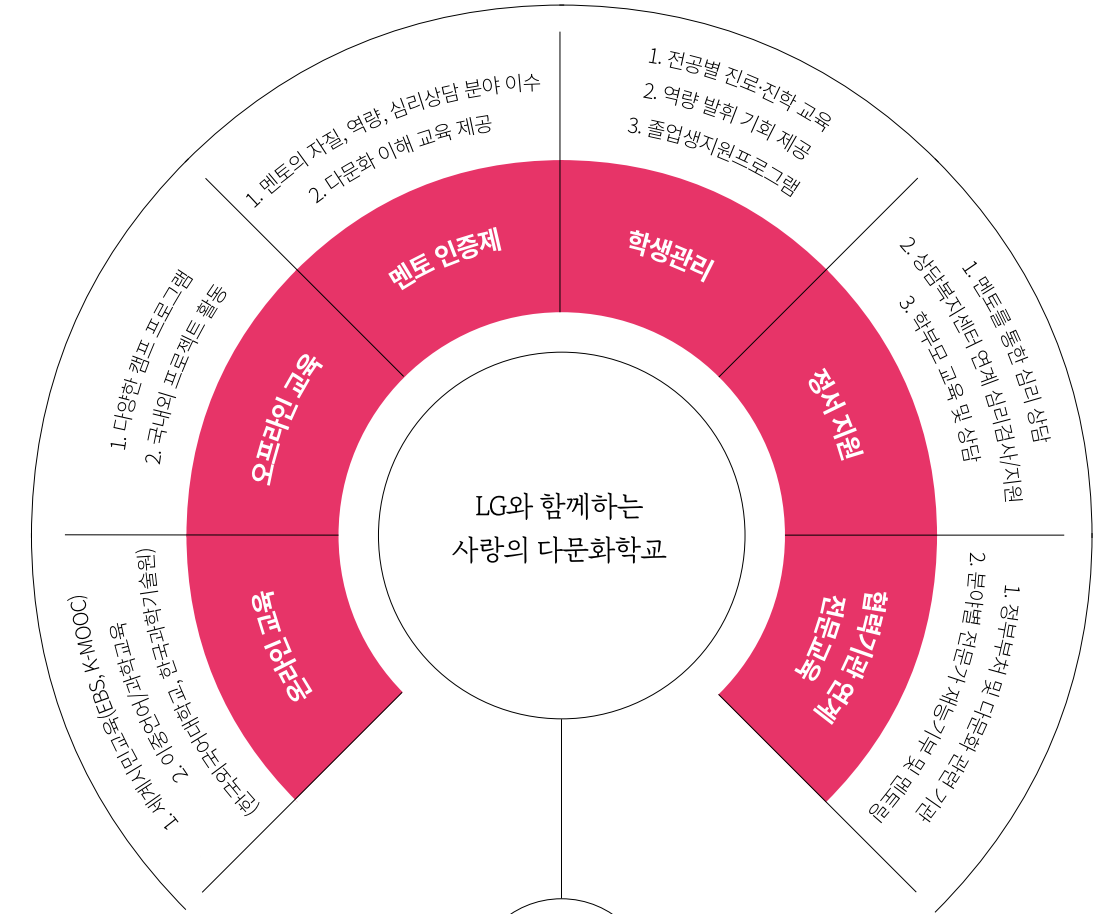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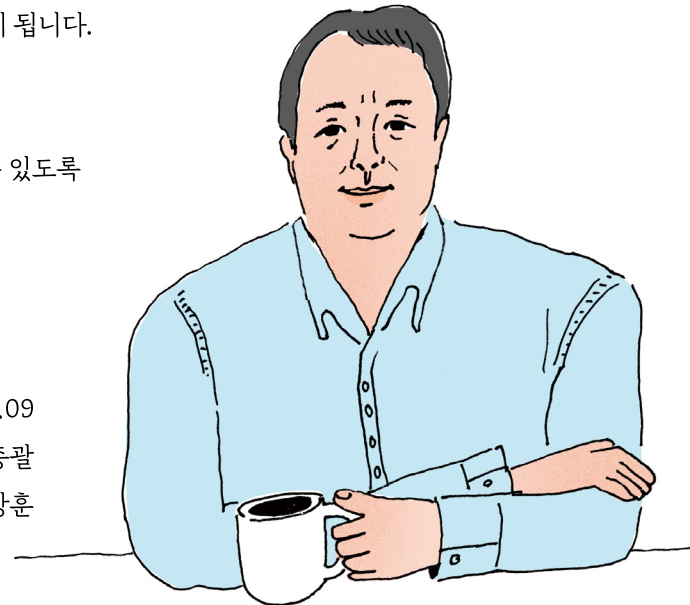
LG는 10년 전부터 다문화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LG 다문화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중언어 능력을 강점으로 발전시키고, 그 실력을 자유로이 발휘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0주년을 맞은 LG 다문화학교는 언어·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 진로진학 상담 및 심리상담 과정 등으로 폭을 넓히는 한편 졸업하는 기간을 열어두는 등 열정있는 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으로 입학했던 이들이 어느덧 사회인이 되어 LG 다문화학교의 소중함을 말할 때마다, 다문화학교의 멘토가 되어 후배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의 선순환이 이뤄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LG는 앞으로도 열정과 의지를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9
LG연암문화재단 총괄
정창훈



비전

LG 다문화학교 청소년은 실질적인 경험과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며, 전세계 전문가의 견해와 지식을 활용하는 지적 탐구가 가능한 인재로 성장합니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인재상

LG 다문화학교 인재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며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복잡하고 세계화된 공동체에 공헌한다.

- 이중 언어/문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중언어 구사자에 대한 요구와 존중이 커짐에 따라 부모 양 국가간 가교 역할 수행
- 적정기술 연구 및 해외 교육 봉사를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사회 기여
- 세계시민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결부해 사회적/교육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는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재능을
발굴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의 가치를 일깨우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을 추구해온 LG는,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한국화를 시킬까’에서 벗어나 ‘두 문화 모두를 조금 더 쉽게 아우를 수 있는 인재로 키울 것인가’로 교육의 목적을 미래지향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성’의 가치로 발전시키고, 정체성 형성과 이상 실현을 돕는 LG 다문화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LG 다문화학교 프로그램의 특징

기존에 없던
이중언어교육의
모델 개발 및 확산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찾아보기 힘든
프로젝트식 과학교육

온·오프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교육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

2010년 첫 입학생을 받은 LG 다문화학교는 2020년 현재 340여 명의 학생이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참여 활동과 프로그램도 병행 중입니다.

LG 다문화학교는 과학과 이중언어 분야에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선발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수용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재능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며, 2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LG 다문화학교는 2년 정규 교육과정으로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심 환기로 그치는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장을 지속시키고 근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을 추구합니다.

LG 다문화학교 지속성장의 원동력

멘토의 탁월한 역량과
적극적인 참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열망과 끊임없는 노력

유관 분야 전문가의
연구와 조언

LG의
꾸준한 지원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이는 참여와 공유

LG 다문화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진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멘토가 수업을 담당합니다.

멘토는 학생이 보다 친근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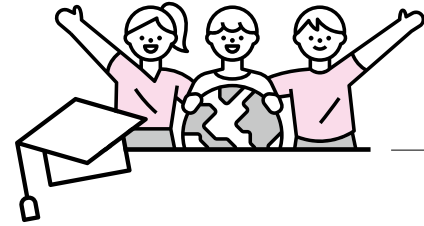
학교생활, 진로 선택, 공부법, 고민 등 여러 부분에서 조언을 하는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학교과 외고 같은 특목고와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학생이 멘토가 되어 LG 다문화학교 캠프에 참가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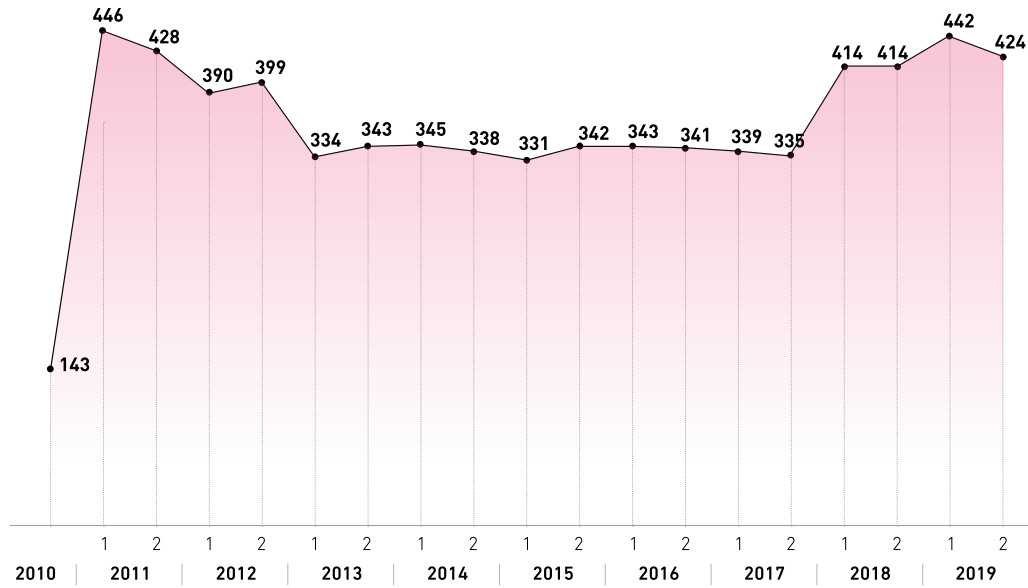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교육의 선순환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LG 다문화학교
수강학생



6,891명

2010년부터 2019년 2학기까지,
언어인재과정을 수강한 학생은 모두 5,473명
과학인재과정을 수강한 학생은 모두 1,418명
- 1, 2학기 중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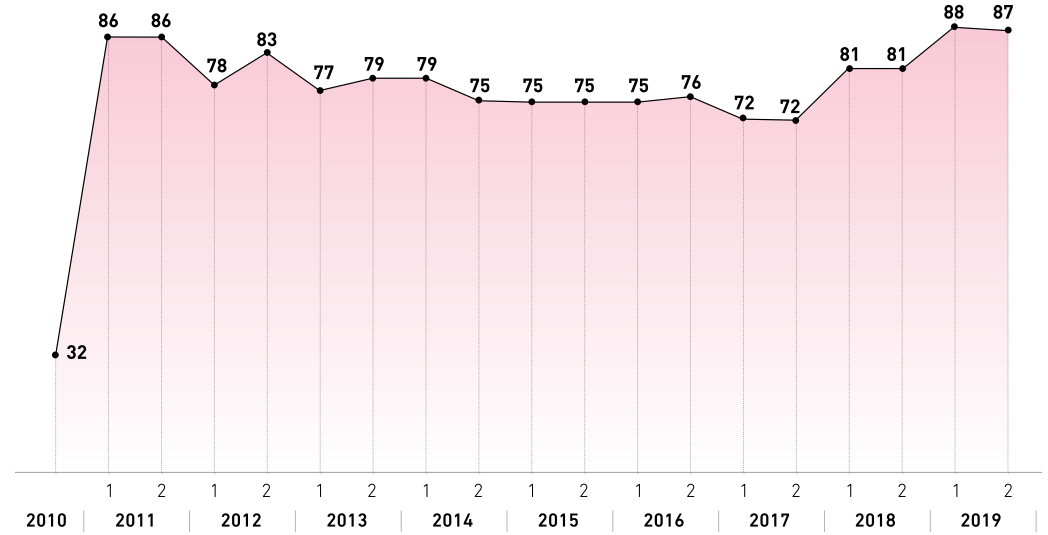


LG 다문화학교
멘토



1,457명

2010년부터 2019년 2학기까지,
언어인재과정에 참여한 멘토는 모두 1,159명
과학인재과정을 참여한 멘토는 모두 298명
- 1, 2학기 중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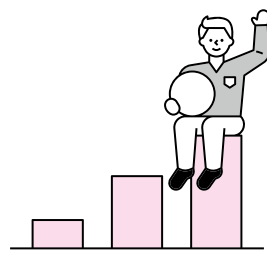


LG 다문화학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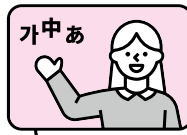
총 사업비

130 억원



언어 코디네이터 강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온·오프라인 과정.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1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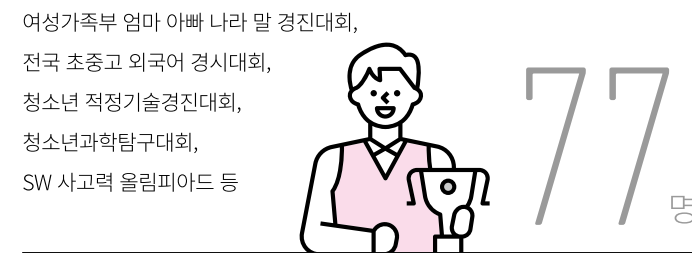
이중언어능력인증시험
참가

2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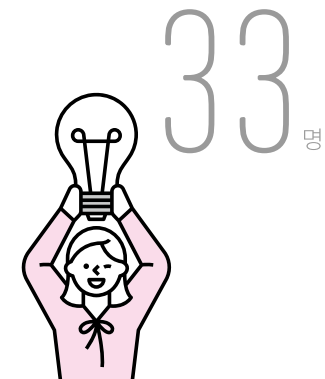
외국어 자격증



각종 대회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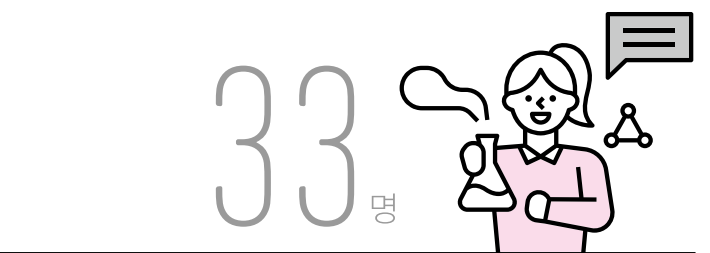
해외 과학 엑스포 출전



해외 문화 탐방



해외 과학 교육 봉사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운다



김능미_ 언어인재과정 2기, 일본어 김나미_ 언어인재과정 3기, 일본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란 한국인으로, 그만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잘 안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발전시킬 기회가 드문 게 현실이어요. 우리 자매에게 LG 다문화학교는 이런 장점을 찾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준 스승이자 친구였어요.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생이 되고 유학생이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해준,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응원해준 파트너였다고 생각합니다.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를 이끌어온 원동력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잠재력을 발전시켜 다름을 남다름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과, 멘토들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지속성장해왔습니다.



김수진_ LG연암문화재단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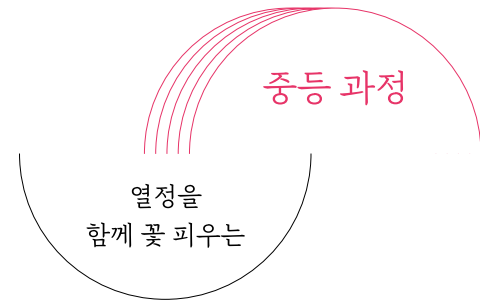
서로 같지 않거나 두드러질 때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문화'도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가 다르고 섞여 있다는 뜻을 담은 단어고요. LG 다문화학교는 이런 '다름'을 '장점과 역량'으로 찾아내는 교육, 더 두드러진 '남다름'으로 키우는 교육을 추구합니다. 공교육과 차별화되는 온라인 수업 및 1:1 화상 수업,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을 돕고 장점으로 발전시키는 오프라인 교육,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교육을 추구합니다.

함께 찾고 함께 꽃피우는 재능, 열정, 꿈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원하는 지식을 배우고
팀워크를 통한 협력과 존중을 알아가며
친구와 함께 정체성을 키우는 곳입니다.
꿈을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이
함께하는 학교입니다.
교육과정은 2년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진과 멘토가 온·오프라인으로
정규수업을 진행합니다.
언어인재과정은 중국·일본·몽골·인도네시아·
베트남·태국 등 6개 언어로 구성되며,
과학인재과정은 실습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과
방학캠프·해외대회 참가 등으로
이뤄집니다.



재능은 호기심과 적성 그리고 이것을 키워나가는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집니다. 초등과정은 재능을 스스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생각의 힘과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지속시키고, 가정·학교·사회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학생, 언어권, 지역 등 다양성과 교육격차 해소까지 고려한 재능 발굴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적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면서, 재능발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열정은 재능을 발전시키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과 응원입니다. 중등과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30여 명의 중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온·오프라인 집중교육과 프로젝트 성격의 참여 활동으로 이뤄집니다.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자아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울곧고 유연한 사고력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기르는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과정과 마찬가지로 중등과정 역시 세계시민교육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필요한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그 비중과 교육의 질을 점점 높여왔습니다. 초기에는 학생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자긍심과 동기부여 등 스스로를 계발하고 성장시키는 데까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LG 다문화학교는 졸업생이 꾸준히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에 필요한 기회 제공과 함께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졸업생 과정은 LG 다문화학교 인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2년은 친구, 멘토, 선배와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졸업 후 멘토가 되는 긍정적인 성장과 순환이 이뤄지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G 다문화학교는 10주년을 맞아 이 선순환과 축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준비 중입니다. 졸업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 등의 경험과 성취를 후배들과 나누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건국_ 언어인재과정 6기, 몽골어

어머니께 몽골어를 배우긴 했지만,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몽골어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1학년 때는 인사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6학년인 지금은 몽골 친척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마음도 취미도 맞춰가는 게 좋아요. 더 공통점을 찾고 더 이해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요.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이 생겼고 그래서인지 학교생활도 더 잘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몽골어를 공부할 거예요.

과학 멘토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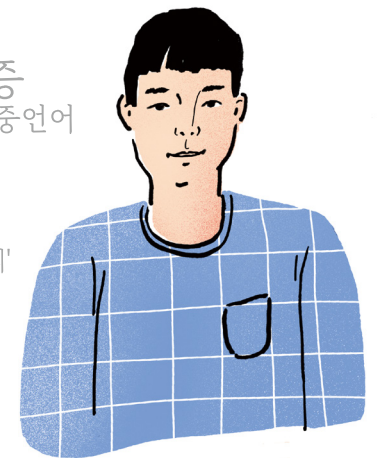
SW 사고력 올림피아드
2회 연속 수상



김효빈_ 과학인재과정 4기

정말 좋은 멘토 선생님과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으로 과학이라는 학문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과학과 공존하며,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더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세상이 저를 기다린다는 걸 알아갔고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를 배우기도 했어요. 해외봉사활동, SW 사고력 올림피아드 2회 연속 수상 등의 활동 역시 제게 큰 자극과 응원이 되었어요.

자격증
이중언어
자신감
자존감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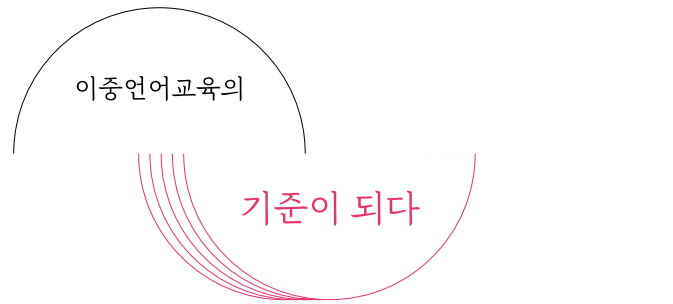


김승민_ 언어인재과정 3기, 일본어

먼 거리를 여행하듯 오가며 공부하는 건 힘들었지만, 이중언어 실력을 키우고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가면서 성취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줬어요. 다른 언어권 친구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성적이던 성격이 달라지고 자존감 역시 높아졌고요. 홈커밍 캠프나 해외연수 같은 활동은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다른 나라의 생생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문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고, 대학에 진학한 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활동으로 이어졌어요. 이런 경험을 차곡차곡 쌓고 제 실력을 키워서 LG 다문화학교 후배를 비롯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어요.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는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입니다. 서로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믿고, 응원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 커뮤니티 역할을 합니다. 초중고 학생으로 이뤄진 멘티,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멘토, 전문강사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학계와 연구자로 이뤄진 전문 교수진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올 수 있었습니다. 참여와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으로 이중언어교육과 프로젝트형 과학교육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차곡차곡 발전시켰으며,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하고 활동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 LG 다문화학교 10주년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공교육 과정에도 없는 이중언어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것은 담대한 도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저마다 다른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교육과정, 교재, 학습평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초등에서 중등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한다는 점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교육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교수법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법, 교재,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교수법을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표준화를 이루고, 그 표준으로 멘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체계성을 발전시켜온 코디네이터와 멘토의 참여가 이룬 성과입니다. 이처럼 함께 배우고 가르치면서 쌓아온 경험은 '이중언어능력인증시험'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LG 다문화학교가 후원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이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이중언어시험으로, 이중언어교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학원에서 배우는 과학, 그리고 영재를 위한 과학... 다양해 보이지만 지식을 배우는 과학교육이 대부분입니다. LG 다문화학교 과학인재과정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실현하는 경험과 지혜를 함께 배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을 배우는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착상과 소통과 토론을 바탕으로 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험과 실행을 통해 협력과 책임을 깨우치고, 발표와 평가 등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나갑니다. 과학인재과정의 또 다른 장점은,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의 최근 동향과 흐름을 경험한다는 데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한 이슈, 최근 해외에서 관심을 끄는 이슈를 선정해서 멘토와 멘티가 함께 시도하고, 함께 실패하고, 함께 답을 구하거나 성과를 도출하는 즐겁고 흥미로운 유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확장시킨 것이 글로벌 리더십까지 고려한 해외대회 참여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일치시키고 다른 문화권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멘토 담당 교수법 정체성 확립 기여 청소년 언어교육



20대
그 자체
교재,
인증시험 개발
참여 기회



엑스포 참가
멘티 멘토
동반성장
창의적 결과물

이현숙_ 언어인재과정 코디네이터, 중국어

저는 LG 다문화학교에서 문화를 포함한 중국어 교육과 관련 동영상 촬영, 멘토를 대상으로 한 교수법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면,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초기에는 오프라인으로 원어민 선생님들과 직접 다문화 학생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수업을 담당하는 멘토에게 교수법을 지도하고 학생에게는 온라인으로 중국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가 교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었지만, 현재는 정체성 형성과 성장을 돕는 세계시민교육부터 리더십 관련 교육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언어 교육의 발전과 함께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민선_ 언어인재과정 코디네이터, 몽골어

몽골어는 한국에서 흔한 언어는 아니라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학용 교재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몽골어를 가르친다는 건 제 나름의 도전이기도 했고요. 학생의 수준과 입장에서 교수법을 고민하는 한편, 문법과 어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몽골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가면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배경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고요. 제게 LG 다문화학교는 20대 그 자체예요. 멘토에서 코디네이터로 성장한 시간들이었고, 교재와 인증시험 개발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몽골어를 가르치는 경험이 제 발전으로 이어졌거든요.

신용우_ 과학인재과정, 멘토

2011년 LG 다문화학교 멘토 활동을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2012년 상해국제청소년과학엑스포에 참가하면서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경험할 수 있었고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ESI 2013 in Abu Dhabi'에 참가했습니다. 아부다비라는 새롭고 낯선 환경, 재능과 관심사가 저마다 다른 멘티들이 협력으로 이룬 성과까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것도 남달랐지만, 멘티 멘토가 동반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직접 체험하는 게 강렬했습니다. 이 경험은 과학 전공자로서 사회공헌,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찾으면서 자란다

임수철_ 과학인재과정 2기



키워드가 주어진다는 게 좋았어요.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이라 뭔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이걸 함께 알아볼까?’, ‘이걸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정하거나 키워드가 주어지곤 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경으로 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키워드를 탐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하고 싶은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있는 줄도 몰랐던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고요. LG 다문화학교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이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진해량_ LG연암문화재단 선임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가 학교인 ‘이유’는 나와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나누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배우고, 우정을 배우고, 꿈을 찾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눈을 기르면서 되고 싶은 내 모습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다움을 참다움으로 만들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거나 2년 동안 공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속감을 갖고 동기부여를 하고 나와 비슷한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추구합니다.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내 언어와 생각으로, 원하는 나라에 기여하거나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마음가짐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찾고 나답게 이루는 ‘다움’, 실용적이면서도 모두를 이롭게 하는 ‘참다움’이 이뤄지는 교육을 추구합니다. 이런 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더 넓고 깊게 배우는 실천 교육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는 아는 것을 할 수 있고, 배운 것을 쓸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합니다. 학업과 함께 국내외 프로그램과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키우고, 봉사활동과 진로상담 등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한 LG 다문화학교의 소중한 성과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글로벌 인재가 후배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움'을 찾아내고 다시 우리의 '참다움'을 찾아나선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생각의 힘
진로 설계
팀워크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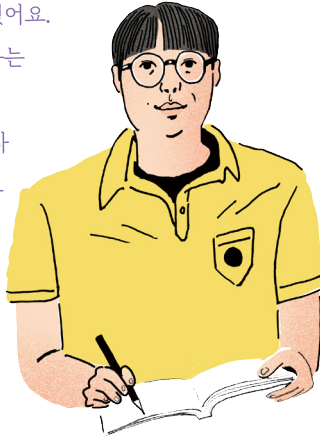
해외연수
미션 수행
주도적
발표



김대일_ 언어인재과정 4기, 베트남어

이중언어능력인증시험 우수학생이 된 것만큼이나 좋았던 건 LG전자와 유플러스가 후원하는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일이었어요. 평소에 몰입교육을 비롯한 오프라인 교육을 좋아했지만, 그중에서도 이러닝과 IT패럴림픽아드 등으로 장애청소년을 지원하는 이 대회는 어려모로 즐겁고 만족스러웠어요. 많은 경우 다문화라고 하면 다양성보다는 다르다는 구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는 오히려 장점이자 강점이 되어서 더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참여한 보람이 컸어요.

우수학생
자원봉사
다양성과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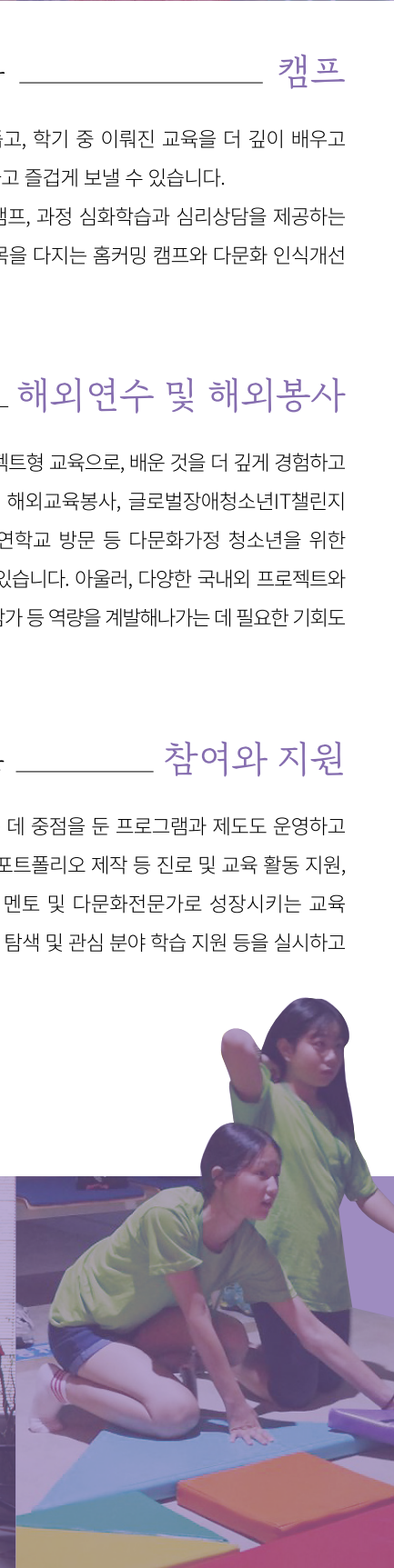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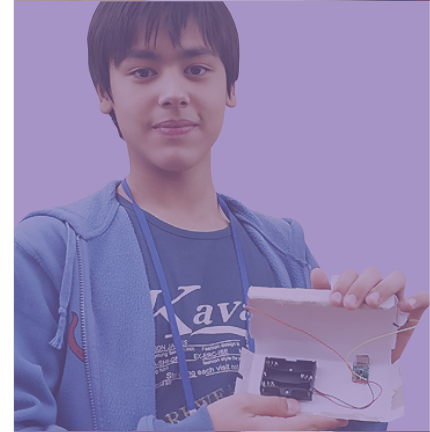


최예지_ 언어인재과정 4기, 인도네시아어

해외연수는 현지 언어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통은 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생활하는 것부터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하는 해외연수는 좀 달라요. 미션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고요. 미션을 수행하자면 제대로 대화를 해야 위치를 알 수 있거나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부터 문화를 이해해야 답을 구하는 것까지 다양한데... 이런 경험 덕에 소극적이던 성격도 달라졌고요.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지만,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요.

배설영_ 과학인재과정 3기, 중등 세계시민교육 담당 멘토

LG 다문화학교에서 제가 배운 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였어요. 세계시민교육 같은 경우, 가르쳐주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생각과 의견을 요구해요. '미래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처럼요. 학생일 때도 멘토가 되어서도 문화적 배경만큼이나 다양한 생각, 입장,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진로 설계뿐만 아니라 꿈을 함께 찾고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 배운 것을 방학 때 체험하거나 심화를 거치는 것도 남달랐어요. 해외대회, 캠프와 행사,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해외대회 참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경에 둔 친구들이 팀워크로 준비하는 과정도 좋지만, 해외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경험도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다문화라는 정체성이 장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신감을 키워주는 소통과 심화 캠프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기 중 이뤄진 교육을 더 깊이 배우고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는 등 방학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초등과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방학 캠프, 과정 심화학습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물입 캠프, 재학생과 졸업생이 만나 친목을 다지는 홈커밍 캠프와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운영 중입니다.

열린 세계 열어갈 미래 해외연수 및 해외봉사

학교나 학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배운 것을 더 깊게 경험하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해외교육봉사,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자원봉사 참여, 부모님 나라의 자매결연학교 방문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국내외 프로젝트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해외 과학대회 참가 등 역량을 계발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회도 함께 제공합니다.

교육 다양성과 지속성장을 돕는 참여와 지원

학생의 성장을 돕고 졸업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과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및 진로 컨설팅과 포트폴리오 제작 등 진로 및 교육 활동 지원, 고등교육 진학 장학금 지원, 졸업생을 멘토 및 다문화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교육 다양성 프로그램, K-MOOC를 통한 진로 탐색 및 관심 분야 학습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실천하는 멘토링

‘한국화’를 시키는 다문화 교육을 넘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성과 재능을 일깨워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가 멘토와 함께 지켜온 가치입니다.

언어와 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교의 협력과 교수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과 대학생이 직접 멘토로 활동하는 모델은 참여와 전문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도한 적 없었던 이중언어교육과 프로젝트형 과학교육을 과감히 개척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동기와 목표, 롤모델을 제시하며 울곧고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학교를 실현한 까닭입니다.

자발적 참여와 운영, 전문가 및 전공자

LG 다문화학교는 LG의 후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융합교육연구센터의 교수진, 전문가, 학생의 참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은 교수진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생 교육은 코디네이터와 멘토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2020년부터 멘토 인증제를 도입하며 다문화 관련 강의를 의무화하는 등 학생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교수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형이나 누나처럼 친근한, 멘토

언어인재과정과 과학인재과정 멘토 모두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 및 대학원생 중에서 선발하며, 최소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학생 교육 기간인 2년을 권장합니다. 멘토는 온라인 화상교육, 캠프와 대회 등의 오프라인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과 관련된 지원활동도 병행합니다. 멘토로 선발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교수법 등을 익히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월례회의, 연간활동을 위한 멘토 워크숍, 한해 활동을 맺음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연말 우수멘토 시상 등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LG 다문화학교에서 활동하는 멘토의 특징은 학생 자원봉사를 넘어, 전문성과 책임이 강조된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부터 멘토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교육과정 개선에 도움이 되었고,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경우 교수법과 교재 개발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능성을 넓히는, 코디네이터

멘토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석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 진행과 함께 학습설계 및 교육과정 개편, 교재 개발 및 편찬, 시험 및 평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멘토로 활동한 경험과 해당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멘토의 전반적인 교수방법에 코칭과 티칭을 담당하며, 학생과 멘토 사이에 교육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도 합니다.



배희주_ 언어인재과정 1기, 언어과정 5기 멘토, 베트남어

언어인재과정 1기로 배웠고,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던 초등학생 시절의 경험을 살려 5기 멘토로 활동했습니다. 다섯 명으로 이뤄진 한 반을 맡아 각 학생마다 주 1회씩 베트남어 수업을 진행했고, 방학에 진행하는 캠프를 비롯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진학을 앞둔 멘티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준비를 돕기도 했습니다. 멘토링의 주안점을 멘티와의 ‘관계형성’에 뒀고, 그 덕분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멘토와 함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저의 교수법과 역량을 발전시키는 등 여러 모로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임채진_ 언어인재과정 5기 멘토, 중국어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는 바람과,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전공해서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멘토에 지원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개개인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필요성, 교수법을 익히고 발전시키는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었고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언어교육과 함께 멘토 교육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40/2/2

2010년 처음으로 시작한 언어인재과정 1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생 각각 40명을 정원으로, 중국어와 베트남 2개 언어를 가르쳤으며, 수업은 한 달에 2번이었습니다.

337/6/8

2019년 언어인재과정 2학기에서 공부한 학생은 337명이며, 6개 언어(중국어 / 일본어 / 베트남어 / 인도네시아어 / 몽골어 /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수업은 한달에 8번이었습니다.

40/1+2

2010년 처음으로 시작한 과학인재과정 1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생 각각 40명을 정원으로 매달 1박2일의 과학캠프를 운영했습니다.

87/16

2019년 과학인재과정 2학기에서 공부한 학생은 87명이며, 수업은 한 학기에 16회를 실시했습니다.

유환정_ 과학인재과정 3기

지식보다는 경험과 가치로 과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럿이 협동하며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준 멘토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학생이 저마다 반짝거리고 두근거리며 더욱 큰 빛을 이룬다는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과학이 주는 정보는 혼자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 등 팀을 이루고 협동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걸 즐겁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외국의 대학에서 이공계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다문화학교와 함께 자라온 10년 그리고 미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적 동화와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일반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거나 다문화 통합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의 10주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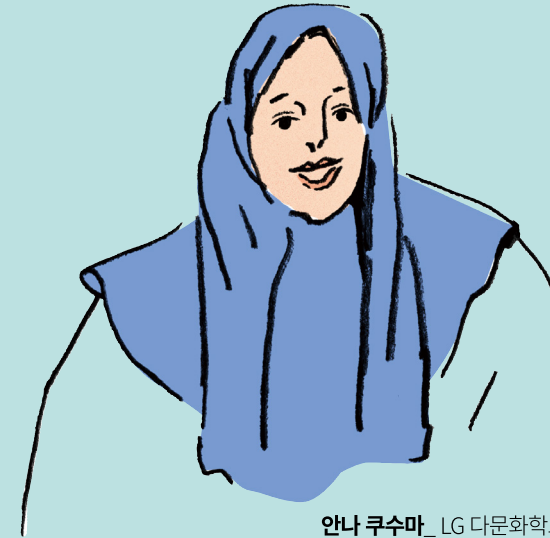


지다솔 교육부 사무관, 교육기획보장과

학교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 사회와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동등한 출발점에서 성장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등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부터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학생까지 교육 대상을 소수에서 다수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LG 다문화학교는 학교교육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전시켜나가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선을 동등하게 맞추는 교육만큼 학생의 잠재된 재능과 역량을 원하는만큼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한 이중언어교육이나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능성을 넓히고 그 성과를 나누는 노력 역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LG 다문화학교가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나가기 기대합니다.

최병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한마음교육봉사단장

한국의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리는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정보도 부족해서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극복하는 게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과 문화적인 적응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가 처한 여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을 통한 성취는 사회적 형성을 돕고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이들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회를 늘리는 등 선순환을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LG 다문화학교는 공교육과 사교육 투트랙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러나 재능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과 정체성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동화보다는 다양성을 긍정하는 사회적 경험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학생이 자라 멘토로 참여하는 선순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나 쿠수마 LG 다문화학교 장누리와 장미나 학생의 어머니, 서울시 명예시민

두 아이를 모두 LG 다문화학교 언어인재과정에 보냈어요. 친가와 외가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듣고 학교에 보낼 결심을 했어요. 이중언어가 능숙하면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선택의 폭 역시 넓어질테니까요. 저는 인도네시아사범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경험을 살려 서울교대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제 아이들을 멋지게 기르고 싶었고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죠. 전공자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LG 다문화학교는 특별하고 만족스러워요. 제 아이들을 지켜보면 이중언어를 즐겁게 배우고, 여러 나라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문화를 배우면서 세계를 보는 눈도 함께 자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난 10년이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가족의 경우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과 가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기대해봅니다.



카와무라 미사키 언어인재과정 3, 4, 6기 멘토, 일본어

일본어 원어민 선생님이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교재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재능을 키우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말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험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학교답다'는 걸 더욱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유학생이자 외국인이라서 참여할수록 한국에서의 소속감과 멘토로서의 정체성이 변화해왔다는 걸 느낍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만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경험,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닫거나 알아가는 것들 역시 소중한 경험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오래오래 만들어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랑의 학교고 마음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학생과 멘토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은꿈[☆]
꿈과
키우는 사랑
LG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와 성장해온 10년과,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는 모두 여러분의 믿음에서 비롯합니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 가능성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나를 믿고, 우리를 믿고, 미래를 믿으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찾고
함께 키워나가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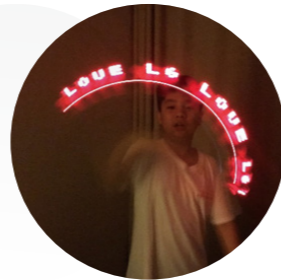
저의 꿈을
키우는 사랑
LG



제 인생의 러닝포인트, LG 다문화학교! 부족한 제가 자부심을 갖게 해주어서 LG 다문화학교!!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재예현(언어인재과정 2기, 중국어)



엄마나라 언어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덕분에 꿈을 찾을 수 있었고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도 수상하게 되었어요!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도와준 멘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혜영(언어인재과정 3기, 베트남어)



일주일에 한번 온라인교육, 한달에 한번 물입교육, 일년에 두 번 캠프, 재미있는 수업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물입교육 때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는 프로젝트를 멘토 선생님과 형 누나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만든 공기청정기가 동작하는 순간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성과는 거두면서 제 꿈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김도윤(과학인재과정 5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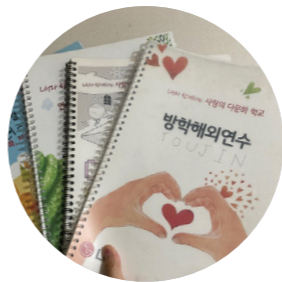
일본 해외연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뜻 깊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김윤수(언어인재과정 5기, 일본어)



캠프멘토, 총괄, 언어를 담당한 멘토 선생님들 모두 많은 조언들과 응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2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볼 때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박가영(언어인재과정 3기, 중국어)



멘토 선생님들과 같은 언어권 학생들이랑 함께했던 해외연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2년밖에 함께 활동하지 못했지만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멘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김환열(언어인재과정 4기, 몽골어)



일본 해외연수를 잊을 수 없어요. 가족여행이나 관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초등학교를 가봤던 경험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유진(언어인재과정 5기, 일본어)



어린 시절부터 과학과 수학을 좋아했지만, 본격적으로 과학과 수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준 건 북극성처럼 진로를 이끌어 공학자를 목표로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환정(과학인재과정 3기)

과학인재과정을 마무리하는 활동인 해외교육봉사에서 삶의 의미 하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봉사란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지만,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의지를 얻는 경험이었습니다. 서정호(과학인재과정 4기)



평소 일본어를 쓸 기회가 없어 실력이 늘지 않았다. 하지만, 이찬샘 멘토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배우고, 약한 부분을 알게 되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통해 진로를 정할 수 있었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인화(언어인재과정 5기, 일본어)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지지만 '신기하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LG 다문화학교에서 물리, 화학, 공학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인식과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제대로 과학을 공부해서 나만의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다.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과학도로서의 미래를 꿈꾼다. 배설영(과학인재과정 3기)



꼭 하나의 길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도와준 멘토 선생님들과 관계자 분들 덕분에 디자이너라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기술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과학인재과정 3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에 잔뜩 긴장했던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함께 만나 수업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네요. 김예나(과학인재과정 5기, 6기 멘토)



인생 멘토인 김민아 선생님, 신민선 선생님! 두 분 덕분에 몽골어를 잘 배워서 지금은 친인척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전에는 대화하기 어려워서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한결 편해지고 좋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인생의 선물과 같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조희진(언어인재과정 3기, 몽골어)



베트남 해외연수를 잊을 수 없어요. 친구들과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과 1주일 동안 정말 즐거운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베트남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김대일(언어인재과정 4기, 베트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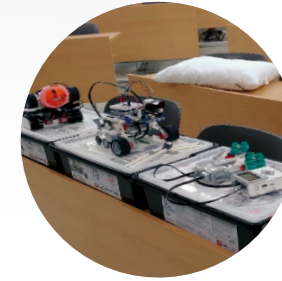
메달 캠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LG 다문화학교 관계자와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캠프를 하면서 언어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더 나은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주현(언어인재과정 2기, 인도네시아어)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결정을 하나'였습니다. 이 자신감은 LG 다문화학교와 함께한 경험과 거둔 성취를 통해 만들어졌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해외대회인 SIYST에 참여하고 발표했던 경험 역시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했습니다. 정노아(과학인재과정 4기)



인도네시아에 갔던 추억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경험하면서 어린 저는 울기도, 웃기도 하였지만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장누리(언어인재과정 3기, 인도네시아어)



제가 LG 다문화학교는 망가진 마음과 무너진 의지를 고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정비소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절망감에 빠졌다가 LG 다문화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치관과 목표를 찾고 설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꿈을 찾게 도와준 친구들과 멘토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임지영(과학인재과정 5기)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